

2022년 10월 31일

제 27호

#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이한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한국과 베트남은 2022년 12월 22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그간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비교적 순조롭게 확대해왔다. 경제분야의 협력은 가장 두드러진다. 양국 간 교역은 지난 30년간 160배 증가하였고, 한국은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순위에서 누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확대되었다. 양국민은 상대국에 약 20만 명씩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와 K-pop을 늘상 접하며, 한국인들은 베트남 쌀국수를 수시로 즐긴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으며 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장점을 진작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향후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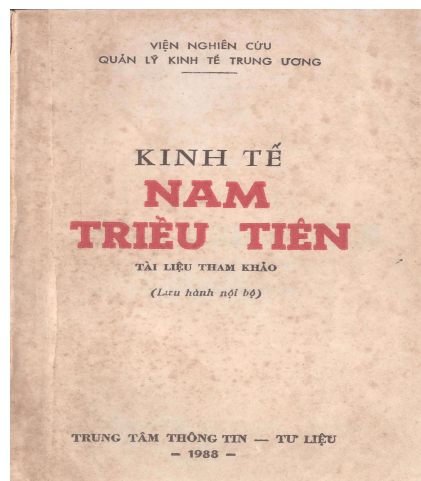
##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이한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 1. 양국 관계의 복원 과정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았다. 양국은 전근대시기에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로서 중국과 협력과 갈등의 과정을 겪었고, 이후 각각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독립과 분단을 경험하였다. 베트남이 1954년에 분단되었을 때, 한국은 남베트남, 즉 베트남공화국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여 1955년 10월에 수교하였다. 이후 베트남이 1975년 4월에 통일되면서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통일될 당시 사이공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인 외교관 세 명의 석방을 위한 양국 간 교섭이 1978-1980년간 제3국에서 있었지만, 양국의 공식 관계는 계속해서 단절되어 있었다.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튼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다. 베트남은 서울 올림픽에 선수단 13명을 참가시켰다. 비록 베트남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하였으나, 참가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베트남 정부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 머이’ 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 연구기관들은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책자를 내부 참고자료로 발간하였는데, 예컨대 공산당 및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앙경제관리연구원은 1988년에 『남조선 경제』를 발간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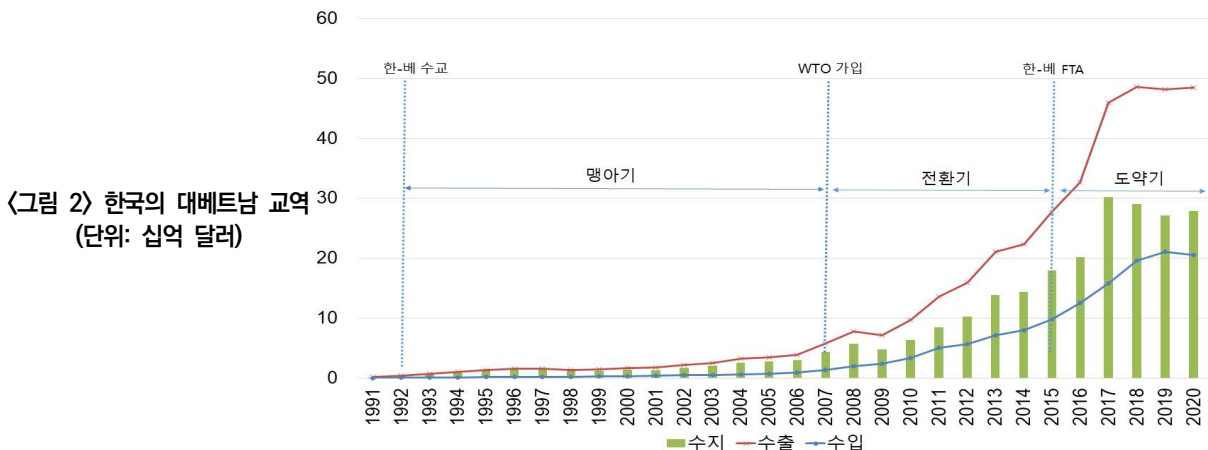


〈그림 1〉 『남조선 경제』 표지

양국 관계의 공식적 개시는 1990년 4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한 장의 팩시밀리 전문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전문에는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한국 대사를 만나고 싶다.”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당시 레마이(Le Mai) 베트남 대사는 정주년 한국 대사에게 양국간 국교 수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것을 타진하였다.<sup>1)</sup>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베트남과의 수교를 급속히 추진할 수 없었다. 1991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 베트남의 부관 (Vu Khoan)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여, 양국 외교부의 고위 인사들은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 한국 외교부는 ‘베트남 정세 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방문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한국의 수교교섭단이 1991년 12월에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측과 제1차 수교 회담을 가졌고, 1992년 3-4월에 걸쳐 하노이에서 제2차 수교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수교회담에서 연락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다. 그해 12월 22일에 이상옥 외무부 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양국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sup>2)</sup>

## 2. 경제 협력 관계의 확대

양국이 수교한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급속히 확대되었다. 양국간 교역액은 1992년에 5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 780억 달러로 약 160배 증가하였다. 2021년에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액은 561억 달러, 수입액은 219억 달러로, 한국은 양국 교역에서 342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양국 교역액은 2023년에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이 대폭 증가한 계기는 베트남이 2007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그림 2). 이제 한국은 베트남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계속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90% 이상이 중간재로서 수출품의 생산에 쓰이고 있기는 하나 적자폭이 커, 양국이 이를 축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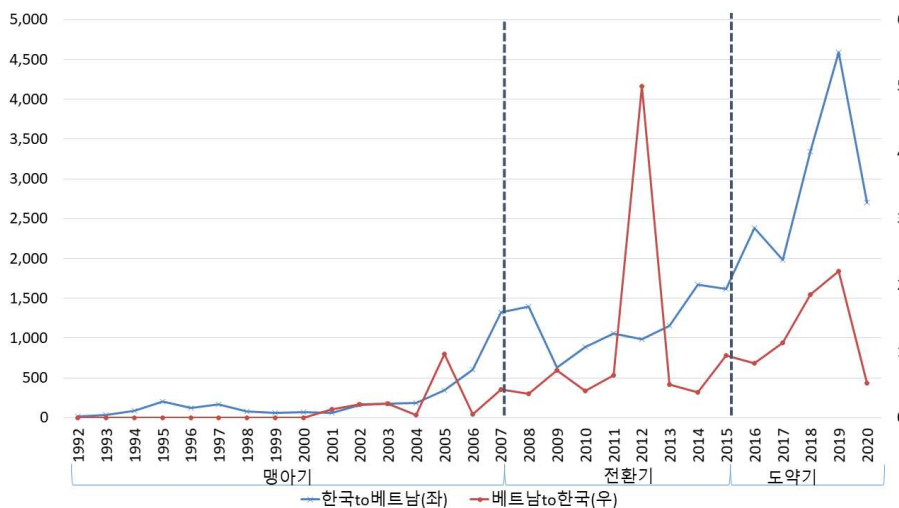


출처: 광성일 외, 2021,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쪽.

1) 김석우, 1995, 『남북이 만나다 세계가 만난다』, 고려원, 283-290쪽.

2) 이한우·부이테끄엉, 2015, 『한국-베트남 관계 20년, 1992~2012』, 폴리테이아, 28-33쪽.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한국은 누계로 1위의 지위에 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1992년에 1억 900만 달러였는데, 2021년까지 투자액 누계는 약 800억 달러로 약 700배 증가하였다.<sup>3)</sup> 한국발 연간 투자액만을 보면,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992년에 1700만 달러로부터 2019년에 4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그림 3).<sup>4)</sup> 2020년말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액의 18%, 프로젝트수의 27%(33,062개 중 8,950개)에 상당하였다. 198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은 805억 달러, 프로젝트수는 9,400여 개로 증가하였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약 1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베트남 수출의 25-30%를 담당하고 있다.<sup>5)</sup> 한국의 직접투자는 총투자 중 제조업 분야에 약 70%를 투자하여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한국 기업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구조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 국내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이는 것도 베트남에 주어진 과제이다. 한편,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림 3〉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직접투자 (한국발 투자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광성일 외, 2021,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5쪽.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의 국내 산업기반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경제 전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의 역할이 크다. 이에 베트남 정부와 기업계는 베트남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이며, 베트남 국내에서 기술 이전과 소재 및 부품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Viet Nam News, 18 Oct. 2022, “30 years on: relationship between Viet Nam and RoK at its best ever.”

4) 광성일 외, 2021,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4쪽.

5) Viet Nam News, 18 Oct. 2022, “FDI inflow from Korea helps VN move up global value chain ladder.”

### 3.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사회 분야에서 양국 관계로 먼저 인적 교류를 들 수 있다.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인과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43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베트남 방문 외국인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수였다. 중부에 있는 다낭을 방문한 한국인만도 170만 명이였다. 2022년 현재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각각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수에서 상위에 위치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결혼이주자 약 4만 2천 명, 취업자격 방문자 약 4만 명 및 유학생 약 6만 2천 명 등이다. 2000년대부터 베트남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현재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부인이 이루는 다문화 가정은 공식 통계로는 약 4만 2천 가구이나 세간에서는 6만 가구로 추산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인들은 꾸준히 늘고 있었다. 한국은 베트남인들에게 방문하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 1, 2위로 꼽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는 한류의 베트남 내 확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의 TV 드라마가 베트남에 방영되면서 한류의 바람은 불기 시작하였다. 한국 영화도 드라마와 함께 한류의 한 부분이었다. 베트남에서 한류 초기에 방영된 한국 TV 드라마로는 1995년에 <내 사랑 유미>, 1996년에 <느낌>, <금잔화> 등이 있었고, 이어 <아들과 딸>, <의가형제>, <첫사랑>, <모델>, <별은 내 가슴에> 등도 방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초기에 베트남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가족 이야기, 연인들의 이야기 등을 다룬 것이 많아서 베트남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사회가 유교 사회라는 유사성, 사람들의 마음에 불교적 심성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는 베트남 사회에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2000년대 전반에 <모래시계>, <가을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유리구두>, <풀하우스> 등도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04년에 <대장금>이 베트남에서 방영되어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한국 고전을 배경으로 한 <주몽>, <허준>, <동이>,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캔들> 등이 이어갔다. <대장금>의 방영 이후 베트남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도 베트남 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대중음악인 K-pop이 베트남에 소개되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보면 한류의 중심이 2000년대 중반에 드라마와 영화로부터 K-pop으로 옮겨간 듯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년 조사에서 보면, 베트남인은 ‘한국’의 이미지로 K-Pop(15%), 한국음식(12.4%), 드라마(9.8%), 화장품(8.6%), 한류스타(7.8%) 등을 떠올린다.<sup>6)</sup> K-pop 스타로는 초기에 H.O.T., 강타 등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었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제 베트남에서 K-pop 스타 중 대세는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되었다.

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58쪽.

한편, 베트남 문화가 한국 사회에 소개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 기관이 주관하여 역사 유물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민간 기관이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였으나, 베트남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얻지는 못하였다. 베트남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한국인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베트남계 프랑스인 쩐아인홍(Tran Anh Hung) 감독, 베트남인 당녓민(Dang Nhat Minh), 레호앙(Le Hoang) 감독 등의 영화들이 소개되었다. 2019년에는 신예 쩐타인후이(Tran Thanh Huy) 감독의 <롬(Rom)>이 뉴커런츠상을 수상하여 베트남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었다.

양국 문학작품의 소개는 2000년대에 들어 더 활발해졌다. 그 이전에는 고전문학 작품들을 번역하곤 했는데, 이후 현대문학을 번역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문학 작품이 베트남어로 출판된 것은 약 100종, 베트남 문학작품이 한국어로 출판된 것은 약 30종에 이르렀다. 아동문학도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이주로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활발히 출판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는 아직은 불균형적이라고 해야겠다. 한국의 문화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며, 베트남 문화의 한국 내 소개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다. 근래에 양국 기업들은 협력을 통하여 드라마, 영화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이 공동 제작한 드라마로는, <사랑의 꽃다발>(2004), <고수풀 향기>(2006), <하노이 신부>(2006), <황금 신부>(2007), <오늘도 청춘 1, 2> 등이 있다. 양국은 영화 부문에서도 협력하여, <수상한 그녀>의 베트남판 <내가 니 할매다>(2015), <씨니>의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 등을 제작하였다. 최근에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가수들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있는데, 그 멤버인 하니는 베트남계로서 본명이 팜응옥현이라는 가수라고 알려져 있다. 대중가요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양국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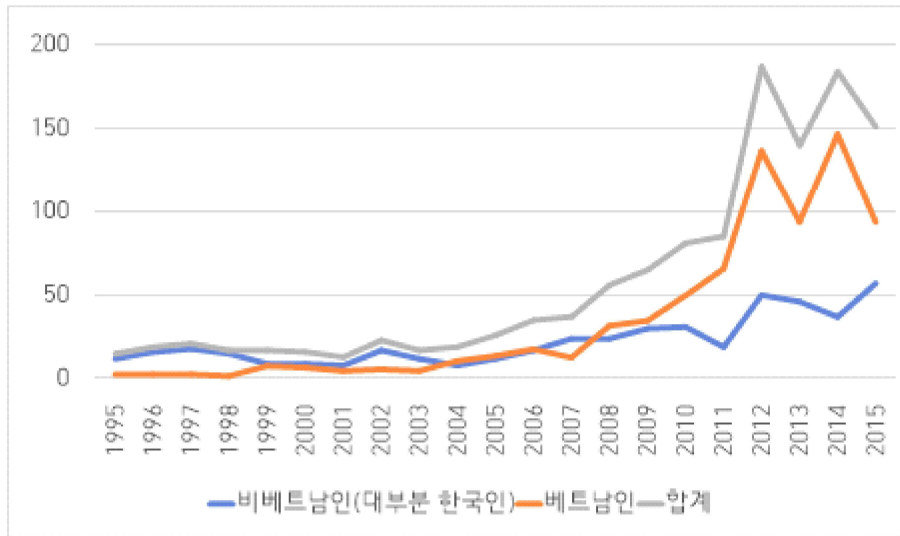
#### 4. 상호 이해의 심화와 미래 지향

양국은 1992년 12월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2001년에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09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에 최고위 단계에 해당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려고 한다.

양국은 그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상대국 언어를 학습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내에는 한국외대, 부산외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베트남어학 또는 베트남학 전공을 두고 있다. 베트남 내에는 한국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한 대학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53개(4년제 대학 41개, 전문대학 12개)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내 여러 곳에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베트남의 대학, 베트남사회과학원 및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왔다.

상대국에 대한 연구 상황을 보면,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 관련 논문이 이제 연간 150편정도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고, 베트남 내에서도 한국 관련 논문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논문의 양적 성장에

기반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때이며, 특히 한국은 베트남 내 한국학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국 내에서 베트남에 관련된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수도 이제 연간 150명 전후에 달하였다. 그들의 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2004-2006년에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2008년부터 베트남인의 수가 많아졌고, 이후 이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4).<sup>7)</sup>



〈그림 4〉 베트남 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저자의 국적별 변화

출처: 이한우, 2019,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안청시·전제성 편,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76쪽.

이상에서 보면,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어 왔다. 그 가운데 경제 협력 관계의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양국 경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에서 1위에 있기에,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한국 기업의 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양국 경제는 공존 관계가 되었다. 단지, 양국은 교역에서 베트남의 적자폭을 줄이고 베트남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국은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불균형과 미흡함도 보인다. 양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져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베트남에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베트남 문화는 아직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한국인들은 한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자들이 만족스러운 노동환경과 경제적 보수로 노동쟁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인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왔으나, 단지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들어 상대국을 비난하기도 한다. 향후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신뢰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7) 이한우, 2019,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안청시·전제성 편,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74-77쪽.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양국이 상생의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성일·백용훈·이한우·Le Quoc Phuong·Vu Manh Loi·Nguyen Thi Thanh Huyen. 2021.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석우. 1995. 『남북이 만난다 세계가 만난다』. 고려원.
- 이한우, 2019,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안청사·전제성 편,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한우·부이테끄엉. 2015. 『한국-베트남 관계 20년, 1992~2012』. 폴리테이아.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Viet Nam News. 18 Oct. 2022. “30 years on: relationship between Viet Nam and RoK at its best ever.”
- Viet Nam News. 18 Oct. 2022. “FDI inflow from Korea helps VN move up global value chain ladder.”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